

# 安昌後 시조의 도학적 지향과 시가사적 의의

송재연\*

1. 머리말
2. 安昌後의 도학자적 삶과 詩歌 향유
3. 安昌後 시조의 도학적 지향과 시가사적 의의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도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향촌사족 安昌後의 생애와 그의 시조 24수를 검토하여 그가 시조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도학적 지향을 고찰하고, 나아가 18세기 시가문학사에서 그의 시조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安昌後는 유교 경전을 읽고 그 이치를 궁리하였는데, 특히 修己의 측면에서 심성을 수양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사족으로서 자신의 직분이 학문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리학적 소양을 갖추는 동시에 참된 본성을 기르고 순수한 마음을 보전하기 위해 盡力하였다. 이를 통해 체득한 도학의 이치는 생활공간인 '閒說堂'에서 친족 및 여러 벗들과 더불어 文, 詩, 歌 등의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향유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수양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심성을 함양하는 실천적 문제를 다양한 양식의 문학 작품으로 창작, 향유하여 교화 효과를 높

\* 서원대 국어교육과 조교수.

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論語』, 『孟子』 등의 유교 경전과 韓愈, 程頤와 같은 성현의 삶을 전고로 하여 인간의 도리와 삶을 살아가는 이치를 실천적 修己 윤리로 전환하여 시조로 노래하였는데, 특히 인간 본성과 처세에 대한 권면을 통한 人道の 함양, 학자의 자세 敎示를 통한 士로서의 직분 수행, 효 윤리의 강조를 통한 가문의식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도학 이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보다는 敎示的 說破에 더욱 초점을 맞춰 청자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17·18세기 향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입지가 약화된 향촌사족들이 향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조를 통해 도학의 이념을 교육하고, 修己를 위한 성리학적 실천 윤리를 강조하여 사족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安昌後는 자신이 살았던 당대 사회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가문의 위기를 살피고, 시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확인된다. 그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黃胤錫의 시조와 비교했을 때 수양론적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사에 대한 윤리를 시조로 노래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安昌後는 효의 윤리를, 黃胤錫은 부부 간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도학적 지향을 달리 하고 있다.

핵심어: 安昌後, 도학자, 유교경전, 시조, 도학적 지향, 修己, 실천 윤리, 敎示的 說破

## 1. 머리말

閒說堂 安昌後(1687~1771)는 전라남도 보성에 세거한 향촌사족으로서, 문집 『閒說堂遺稿』에 시조 24수와 가사 <名分說>을 남기고 있다. 그는 도학의 이념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文·詩·歌의 다양한 양식으로 구현하면서 시조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작가라 할 수 있다. 또 시조 문학사에서 풍류적 성격의 시조를 주로 창작했던 호남지역 시조 작가가 도

학적 성격의 시조를 다수 창작·향유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安昌後의 시조는 창작 및 향유양상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지만, 그의 시조에 대한 연구는 이상보<sup>1)</sup>에 의해 자료가 소개된 이후, 정홍모, 설인경 등에 의해 18세기 향촌사족 시조의 시대적 경향성을 밝히는 측면에서만 언급되는 정도였다. 정홍모<sup>2)</sup>는 安昌後의 시조를 성리학적 윤리에 바탕을 둔 사대부로서의 이념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중앙과의 연계가 끊어진 한미한 18세기 향촌사대부의 자기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의식이 이와 같은 경직된 이념 취향의 시조로 발현된 것으로 보았다. 설인경<sup>3)</sup> 역시 18세기 향촌사족 安昌後가 향촌 내에서 가문의 결집을 통해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족들이 지녀야 할 윤리를 가문과 문중에 초점을 맞춰 시조로 형상화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중앙으로의 정치적 진출이 단절된 향촌 사족이 ‘자기정체성 확보’ 혹은 ‘가문의 지위 유지’를 위해 시조를 통한 유교적 실천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安昌後의 시조가 실천 윤리를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이념지향적’ 시조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18세기를 살았던 향촌사족이자 도학자로서, 그가 어떠한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처지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도학에 기반한 시조를 창작·향유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도학의 이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경직된 실천 윤리를 시조로 傳言했다고 단순화한 경향도 농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집 『開說堂遺稿』<sup>4)</sup>에 수록된 행장, 묘비명을 비롯한 산문 기록뿐만 아니라 文, 詩, 歌 등의 문학 작품을 종합적으로 고찰함

1) 이상보는 安昌後의 문집 『開說堂遺稿』를 발굴하여 출저 및 서지사항, 작가 安昌後의 가계와 생애, 詩歌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료를 학계에 소개하여 연구 자료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보, 『開說堂 安昌後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9,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91, 5~40면.

2) 정홍모, 『18세기 향촌사대부 시조의 한 국면-남극엽·황윤석·안창후의 시조』,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230~235면.

3) 설인경,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 연구』, 『문창어문논집』47, 문창어문학회, 2010, 197~233면.

4) 『開說堂遺稿』의 경우 필사본에 비해 목판본에 누락이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필사본을 주 자료로 이용하고, 목판본을 참고자료로 이용한다.

으로써 시조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문학적 생애를 밝히고, 安昌後가 短歌인 시조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도학적 지향과 시적 표현의 특징, 그리고 시가사적 의의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安昌後의 도학자적 삶과 詩歌 향유

安昌後는 金麟厚, 林億齡과 더불어 속세를 떠나 유유자적하였다 하여 ‘湖南三高’로 일컬어졌던<sup>5)</sup> 安舄의 7대손이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기질이 인정 많고 진실했으며, 풍채는 크고 단단했고 점잖기가 어른 같았다.<sup>6)</sup> 그는 충과 효를 대대로 이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상을 치를 때도 예를 다하여서 3년 동안 중문에 들지 않았고 상복을 벗지 않았다.<sup>7)</sup>

무엇보다 그는 『論語』, 『孟子』, 『中庸』 등 유교 경전을 읽고 그 뜻을 스스로 깨우치고자 진력하였다. 평소 의관을 단정히 하여 경서의 뜻을 궁리했는데,<sup>8)</sup> 특히 ‘求放心’ 석 자를 궁극적인 수양방법으로 여겨 손수 써서 부적처럼 차고 다니며 경전의 이치를 체득하고자 노력하였다.<sup>9)</sup> ‘求放心’은 “학문의 道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놓은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뿐”<sup>10)</sup>이라는 孟子의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선한 마음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수양법이다. 그는 이러한 ‘求放心’의 의미를 새겨가며 심성을 수양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21세 때에는 국내 선현들의 古家와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한 명사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人道는 나에게 있으니 멀리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여덟 글자의 뜻을 밝히고 특별히 방 모퉁이에 써두기도 하였다.<sup>11)</sup> 그 이후

5) 안용백 편, 『竹山安氏族譜』卷2, 국립중앙도서관, 1982. “與金河西麟厚石泉林億齡, 優遊外服, 世稱湖南之高.”

6) 『湖南邑誌』卷15, 『寶城』. “舄之七代孫. 自幼時氣質敦確, 儀容寬毅儼若大人.”

7) 『湖南邑誌』卷15, 『寶城』. “世襲忠孝, 事親至孝, 居喪盡禮三年, 不入中門, 不脫衰經.”

8) 『湖南邑誌』卷15, 『寶城』. “平居整衣冠端坐, 沈潛經義.”

9) 『開說堂遺稿』, <開說堂行狀>. “二十歲, 丙戌, 手書求放心三字, 佩之以儆, 觀感而講究經義.”

10) 『孟子』, 『告子章句上』.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

11) 『開說堂遺稿』, <開說堂行狀>. “二十一歲, 丁亥, 國內先賢古家, 林下讀書之家, 一一訪問, 而

에도 여러 경전을 폭넓게 읽고 깊이 생각하여 이치의 오묘함과 의리의 미묘함을 소상히 이해하여 꿰뚫어보았다. 이러한 경전에 대한 耽讀과 이치의自得을 통해 ‘碁三百’을 주해하기도 하였고, 儀禮의 常變을 구분한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또 理氣의 선후나 四端七情과 같은 주장을 논하는 데 이르러서는 蘊奧한 뜻을 펼친 것이 많았으며 李珣의 학설을 절충하여 명백하게 說破하기도 하였다. 일가 어른인 梧軒公 安壽相이 그를 가리켜 “博學한 君子라도 이 아이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칭찬한 것을 보면, 그의 학문이 고명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그 명성이 고을에 자자하여 의심나는 것을 묻고 학업을 청하는 자가 매우 많았지만, 그는 더욱 자신을 감추고 겸손함을 지키며 오직 修己의 실천에 힘썼다.

이러한 도학에 대한 탐구는 생활공간인 ‘閒說堂’을 중수하고 나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59세 때인 1745년부터 집 안팎을 중수하였는데, 그 이듬해 둘째아들 處壽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자 이를 잠시 멈추었다가 1747년에 비로소 ‘閒說’이라는 堂號를 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곳 閒說堂에서 경전을 탐구하여 그 이치를 체득함으로써 심성을 수양하는 동시에 族叔 安世濟 및 여러 벗들과 더불어 <閒說堂記>를 짓고, 한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수창하며 문학 활동을 했다.<sup>13)</sup>

그런데 安昌後의 문학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自號이자 堂號로 내건 ‘閒說’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대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각각 직분을 갖게 되니, 선비[士]·농부[農]·장인[工]·상인[賈] 등 四民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문은 선비의 직분이요, 경작은 농부의 직분이요, 장인은 생활도구를 넉넉하게 만드는 것을 직분으로 여기고, 상인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환함을 직분으로 생각한다. 이는 분수에 따라서 각각 그 직분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내가 평생 동안 직분으로 여긴 것은 무엇이었던가? 장인의 技巧,

皎人道在我，不必遠求，八字特書于座隅。”

12) 『閒說堂遺稿』, <閒說堂行狀>. “至論理氣先後四端七情等說，多發蘊奧，而又以栗谷之說，折衷而說破明白。族祖梧軒公稱愛曰，‘雖博學君子，無過此兒。’”

13) 『閒說堂遺稿』, <年譜>. “丁卯，大王二十三年，公六十一歲。揭堂號曰閒說。先是乙丑，內外家舍重修，而亡子處壽監事矣，未克夭逝壽，今纔了畢，而揭号焉。閒說堂記及四韻見本集，族叔世濟氏及諸友，記也韻也，亦見本集附錄。堂號黃陝川運祚書之。”

상인의 財貨는 일찍이 배우지 못했으니, 지금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농사는 백성의 天職이기에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더듬거리다 시기를 놓쳐 끝내 노숙한 농부처럼 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장인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며 또 농부도 틀렸다. 오직 선비의 직분은 남에게 듣고 책에서 보는 것으로 평소에 하는 일이다. 다만 그 설명만 듣고 그 뜻을 생각해 보지 않거나, 그 글만 보고 깊은 뜻을 탐구해 보지 않으면서, 몸은 구속을 싫어하고 안일함을 즐기며, 마음은 耳目으로 달려가고 富貴를 부러워하여, 참으로 그 얹이 밟지 못하고 행실이 돈독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 늘어버린다면, 60년 동안 듣고 본 것이 한낱 이야기 밑천에 그치게 될 것이니, 四民 중에서 누가 함께 벗할 것이며, 누가 더불어 교유하겠는가?

이 때문에 나는 慶用事가 아니면 출입에 뜻을 두지 않았고, 아들이나 조카가 아니면 품평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 형제와 마주하여 문답할 때에도 ‘한가로운 말[閑說]’뿐이었고, 친지를 찾아 담론할 때에도 ‘한가로운 말[閑說]’을 할 뿐이었다. 이른바 ‘한가로운 말[閑說]’은 터무니없이 허랑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참된 본성을 기르고 나의 꾸미지 않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 어지럽게 다투려는 뜻은 없다. 이러한 까닭에 ‘閑說’이라 스스로 호를 지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도 또한 참으로 한가롭다[眞閒] 생각할지 한가롭지 못하다[非閒] 여길지 모르겠다.<sup>14)</sup>

<閑說堂記>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士農工商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데, 작자 자신은 장인의 기술과 상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은 배운 바가 없어 지금 할 수 없고, 농사는 배운다고 한들 노숙한 농부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선비의 직분인 학문에 전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선비가 보고들은 바를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살피지 않아 얹이 지극하지 못하고 행실 역시 돈독하게 하지 못한 채 늘어버린다면 지난날의 견문은 한낱 이

14) 『閑說堂遺稿』, <閑說堂記>. “夫人之生於世, 各有其職, 士農工賈四民, 是也. 學爲士之職, 耕爲農之職, 工以贍器用爲職, 賈以通有無爲職. 此其隨分, 而各職其職者也. 顧余平生所職, 何事. 工之巧, 賈之貨, 曾未之學, 今不必強. 農是民之天, 非不欲學, 而常失於緩, 終不如老農. 然則非工非賈, 而又違於農. 惟士之職, 聞於人, 見於策者素矣. 只聞其說, 而不思其旨, 只見其辭, 而不究其蘊, 身獸拘束, 耽好安逸, 心馳耳目, 歆豔富貴, 誠知其知不明行不篤, 而優遊以至老焉, 則六十年聞而見之者, 徒爲口話資而止, 其於四民之中, 誰與之友乎, 誰與之遊乎. 是余之所以非甲慶, 則無意於出入, 非子侄, 則無心於評品. 與兄弟相對答問者, 閑說而已, 接親知相訪談論者, 閑說而已. 其所謂閑說者, 非清虛放浪之謂, 只是養吾眞保吾拙, 而無紛競之意也. 吾以此閑說自號, 而不知聽之者, 亦以爲眞閒耶, 非閒耶.”

야기 밑천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때문에 작자 자신은 경조사가 아니면 안팎 출입을 하려 하지 않았고, 아들이나 조카가 아니면 품평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 형제나 친지들과 대화할 때에 단지 ‘한가로운 말[閒說]’을 나눌 뿐이었는데, 여기서 ‘한가로운 말[閒說]’은 터무니없이 허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본성을 기르고 꾸미지 않은 마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세상 사람들이 내실에 힘쓰지 않고 헛되이 당론이나 시비만을 숭상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심성의 수양에 전념하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5)</sup>

安昌後는 이러한 ‘閒說’의 요체를 文, 詩, 歌 등의 문학 작품으로 구현하였다. 人道, 人心道心, 心意志氣, 食色, 天性賢愚同, 謹身以約 接人以厚, 愛惡以公, 士有恒心 民易失恒, 知事, 知義理, 喜聞過無隱無識, 養子方知我不孝, 子以父母心爲心則率性而爲孝, 可繼述則繼述可改則改之, 思先則陸族, 戒貪女樂, 樂樂而不淫, 心樂爲本 樂樂爲末, 戒好勝, 是非不可自恃輕定, 戒驕, 有知不教不知同, 自歎出處難, 自責徒言無實과 같은 심성 수양의 덕목을 하나의 소재목 아래 한문으로 文과 詩를 짓고, 또 국문으로 시조를 지었다. 그리고 ‘名分說’이라는 제목으로 文과 詩를 짓고, 이를 국문 가사로 표현하기도 하였다.<sup>16)</sup>

이는 安昌後의 시가 창작 및 향유에 나타난 변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한문/국문’이라는 언어와 ‘산문/운문’이라는 양식의 선택을 통해 도학을 기반으로 한 생활윤리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다양한 양식들 간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安昌後는 도학의 생활윤리 덕목을 먼저 한문으로 짓고, 그 내용을 집약하여 한시와 시조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가사 <名分說>의 경우도 마찬가지

15) <閒說堂記> 마지막 부분에 한시가 부기되어 있는데, 그 시에 “번잡함에 마음을 쉬이 잃을 까 항상 두려워 뜻에 어긋남이 없기를 다시금 고요히 생각하네. 남의 물음에 대답하니 오직 한가로운 말일 뿐. 뜬구를 따르는 是非를 멀리하려 하오.(常恐煩撓心易失, 更思幽靜意無違. 人言我答惟閒說, 欲伴浮雲遠是非)”라고 되어 있다.

16) 安昌後의 문집 『閒說堂遺稿』는 필사본과 목판본 두 가지 형태로 전하고 있는데, 초고본인 필사본은 소재목 아래 ‘文’과 ‘詩’를 함께 배열한 후 ‘歌’를 따로 떼어 수록하고 있고, 목판본은 ‘閒說堂二十五并詩歌’라고 제목을 붙인 후 각각의 소재목 아래 文·詩·歌를 차례로 배열하여 기록하고 있다.

17) 한시와 국문시가의 경우 文을 바탕으로 한시와 국문시가를 동시에 지은 것인지, 아니면 한시를 먼저 짓고 그것을 다시 국문시가로 노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반대로 국문시

지로, 한문 산문의 내용을 토대로 詩와 가사를 창작하였다. ‘名分’이라는 항목의 경우만 시조가 아닌 가사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守分の 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短歌인 시조의 한계를 느끼고 長歌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文, 詩, 歌 양식을 통해 표출된 도학의 생활윤리와 표현양상을 ‘人道’라는 제목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자.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신령하여 하늘을 대신하여 天道를 행하는 존재이다. 천지의 정기를 품부 받았고, 천지의 광대함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元亨利貞이란 것은 하늘[天]이니 사람이 받아서 仁義禮智로 행하고, 健強不息이란 것도 하늘이니 사람이 얻어서 이것에 부단히 힘써 행해야 한다. 기강을 세워 진작하면 인륜이 있어서 어지럽지 않고, 각각이 그 직분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과 있어도 혼란스럽지 않으니, 이것이 三才에 참여하여 人道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까닭이다. 만일 아버지로서 자애롭지 않고, 자식으로서 효도하지 않고, 윗사람이 거만하고 아랫사람이 공경하지 않고, 이익을 탐내서 명분을 거스르면 겉모습은 인간과 비슷하더라도 금수라 할 수 있으니 어찌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고을 소년들은 두려워해야 하도다. 이를 克念克敬하여 반드시 人道를 다해야 하도다.<sup>19)</sup>

먼저 文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늘을 대신하여 天道를 행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사람은 天道의 네 가지 원리인 元亨利貞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仁義禮智를 부단히 힘써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上下尊卑의 인간관계의 질서인 인륜을 세워 그 직분에 따르는 삶을 산다면 인간다움을

가을 짓고 이어서 이를 漢譯하여 미진한 내용을 보충하여 한시를 지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필사본 『閒說堂遺稿』를 보면, 도학의 윤리 덕목을 집약한 소재목 다음에 文과 詩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歌’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소재목과 시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문을 먼저 짓고 그것을 요약해서 한시로 지은 다음, 시조나 가사로 옮겼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8) 김현식, 『18세기 사족층 가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1, 83면.

19) 『閒說堂遺稿』, <人道>. “人者萬物中最靈，代天而行天道者也。稟天地之正氣，體天地之廣大，故元亨利貞者，天也，而人得以用仁義禮智，健強不息者，天也，而人得以行孜孜不怠於是乎。立綱振紀，有倫而不紊，各受其職，群處而不亂，則此所以參於三才而人道至重者也。苟或父而不慈，子而不孝，上慢而下不恭，貪利而犯名分，則貌雖類人，能言之禽獸，何可謂之人也。吾黨之少年恐俱乎。此克念克敬必盡人道也。”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부자간의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모와 자식, 상하의 윤리를 거스르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익을 탐내 명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정하여 이들은 사람답지 못하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즉, 守分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명분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면 금수와 같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일가를 비롯한 고을 젊은이들에게 이를 명심하여 人道를 다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文에서 人道가 중요한 까닭을 밝히며 상황을 가정하여 인과적으로 부연 설명하며 논지를 전개시켰던 것과 달리, 한시와 시조에서는 人道의 개념이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고, 人道의 중요성을 당위적으로 전제한 후 ‘反求諸己’라는 구체적인 수양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人世多豈盡人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어찌 다 사람이라  
 人能人道乃爲人 사람은 人道를 다해야 사람이 되느니라.  
 求諸己也備人道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人道를 갖추게 되는 것이니  
 不必勞遠訪人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도다.

인이 시이라흔들 사람다 시이라  
 시이 시이라사 시이 시이나라  
 진실노 人노릇 ㅎ라 ㅎ면 反求諸己 ㅎ여스라

예로 든 한시와 시조를 보면, 사람이 人道를 다해야만 사람다워질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反求諸己’라는 실천윤리를 제시하여 집약하고 있다. 특히 시조에서는 道를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차원의 人을 설정해 놓고 반복하여 대비함으로써 우리 말 노래로서의 운율적 효과를 높이며 종장에서 ‘反求諸己 ㅎ여스라’라는 명령법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安昌後는 실천 윤리를 비롯한 도학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교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학 양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3. 安昌後 시조의 도학적 지향과 시가사적 의의

#### (1) 安昌後 시조의 도학적 지향

安昌後는 실천적 修己 윤리를 노래한 24수의 시조를 지었는데, 모두 도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도리와 삶을 살아가는 이치를 밝혀 놓은 것이다. 시조 각 수마다 소재목을 붙여 그 내용을 집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기도 하다.

	소재목	경전	주제
1	人道		사람의 도리
2	人心道心	『書經』	人心과 道心
3	心意志氣	『孟子』	心意와 志氣(志의 강조)
4	食色		食慾과 色慾(中道の 선택)
5	天性賢愚同	『論語』	학문 권면
6	謹身以約 接人以厚	『孟子』, 韓愈	처신
7	愛惡以公	『禮記』	사랑과 미움(공변됨의 유지)
8	士有恒心 民易失恒	『論語』, 『孟子』, 『詩經』	恒心 갖기
9	知事		공평한 일처리
10	知義理	『孟子』	사욕 버리기
11	喜聞過無隱無識		그른 일 바로잡기
12	養子方知我不孝		효도
13	子以父母心爲心則率性而爲孝	『論語』	효도
14	可繼述則繼述可改則改之	『中庸』, 『論語』, 『書經』	先祖의 유업 계승(효도)
15	思先則睦族		친족과의 敦睦
16	戒貪女樂	程頤, 『論語』	女樂에 대한 경계
17	樂樂而不淫	『論語』	음악 즐기기
18	心樂爲本 樂樂爲末		心樂
19	戒好勝		好勝에 대한 경계
20	是非不可自恃輕定		是非 가리기
21	戒驕		교만함에 대한 경계
22	有知不教不知同	『論語』	敎人不倦의 권면

23	自歎出處難		出處 선택의 고민
24	自責徒言無實	『論語』	말조심

安昌後의 시조 작품은 그가 탐구해 왔던 『論語』, 『孟子』, 『詩經』, 『書經』, 『禮記』 등의 유교 경전과 孟子, 韓愈, 程頤와 같은 성현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의 도리, 인간 본성, 처세, 학문 연마 및 학자적 태도, 出處의 문제, 효도 및 先祖의 遺業 계승, 음악관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조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작가가 인간이자 사족(士族)으로서 갖추고자 노력했던 도학적 지향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간 본성과 처세에 대한 권면을 통한 人道의 함양

도학을 인간과 우주 자연을 설명하는 방식인 존재론과 인간이 나아가야 할 당위를 익히는 수양론으로 구분할 때, 安昌後는 인간에 대한 설명과 실천적 문제를 중시하는 수양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安昌後는 유교 경전의 탐구를 통해 체득한 도학의 이치를 시조로 형상화했는데, 특히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하여 내면의 심성을 함양하는 실천 영역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시조는 安昌後가 지은 시조 24수 중 11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에 대해 중용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작품과 세태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를 敎示하는 작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감정과 관련된 실천 윤리를 노래한 작품을 살펴보자.

食色雖重 訶나 亡身이 또 害 | 로쇠  
 言其重 不可無요 言其害 不可有 | 니  
 아마도 不厭不貪 訶오사 善養氣質일가 訶노라

愛而知其惡호고 惡而知其善호면  
 中心이 至公호야 是非分明 호오리라  
 엇지타 末世言論은 阿於所好 호는게야

<愛惡以公>

<食色>은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본성인 식욕과 색욕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작자는 식욕과 색욕이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不厭不貪’, 즉 멀리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도 않는 것이 기질을 善養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색욕에 있어 중용을 지키자는 교훈을 직접적인 언술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愛惡以公>은 감정의 양극단이라 할 수 있는 ‘사랑과 미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조의 초장은 『禮記』 『曲禮』의 문구<sup>20)</sup>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 노래하였다. 초장은 사랑하면서도 그 악함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선함을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大學』의 “좋아하면서 그 악을 알고, 싫어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안다”는 구절<sup>21)</sup>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대상을 대할 때 사람의 감정은 한쪽으로 편벽되고 쉽고, 이렇게 편벽된 마음의 상태에서서는 선악을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 좋아하는 마음에 치우친 상태에서 그 대상의 악함을 알 수 없고, 싫어하는 마음에 치우친 상태에서 그 선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작자는 마음을 至公無事의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래야만 시비가 분명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末世의 言論은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따르고 있어 한탄스럽다고 하였다.

다음은 현실 세태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敎示하는 시조 작품이다.

20) 『禮記』, 『曲禮』. “賢者, 狎而敬之, 畏而愛之, 愛而知其惡, 憎而知其善, 積而能散, 安安而能遷.”

21) 『大學章句』傳8章. “所謂齊其家在脩其身者, 人之其所親愛而闕焉, 之其所賤惡而闕焉, 之其所畏敬而闕焉, 之其所哀矜而闕焉, 之其所放惰而闕焉. 故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鮮矣. 故諺有之曰, ‘人莫知其子之惡, 莫知其苗之碩.’ 此謂身不脩, 不可以齊其家.”

그른 일 올타 흐고 올흔 일 그르다 알기 쉬오니  
 深思精察흐야 즈시 알기 공부흐소  
 이 도리 有道者의 質定흐오사 是非分明흐오리라

<是非不可自恃輕定>

이 시조의 초장과 중장을 보면, 세상사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작자가 청자들에게 갖추도록 요구한 실천 윤리는 ‘深思精察의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장에서는 공부를 통해 얻은 도리를 다시 道를 완성한 사람에게 質定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비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혼란스런 세상 속에서 시비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서 앎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터득한 앎의 내용을 도를 갖춘 성현에게 質定하여 분명하게 알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徒言은 크게 흐나 進就에 無實흐니  
 反己흐야 自愧흐고 向人흐야 嘲笑 | 로다  
 그러나 狂夫言도 聖人이 굴히시니 不以人廢言일가 흐노라

<自責徒言無實>

이 시조는 徒言, 즉 허황하여 믿을 수 없는 헛된 말이 난무하는 세태에 대처할 수 있는 처세 방법을 교훈한 작품이다. 헛된 말들은 크게 떠들어대지만 일을 하는 데에는 실속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고, 남에게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그런데 종장에서는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은 분별할 수 있으니 사람으로 판단하여 말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노래하였다. 이 구절은 『論語』 「衛靈公」에서 가져온 것으로, 君子는 한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천거하지는 않으며 사람됨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sup>22)</sup>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결국 작자는 헛된 말은 실속이 없을 뿐이니,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公平無私한 知鑑을 갖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 2) 학자의 자세 敎示를 통한 士로서의 직분 수행

安昌後는 향촌사족으로서,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도학의 이념을 체득하는 데 진력했던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앞서 <閒說堂記>를 통해, 그는 세상 사람들의 당론이나 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선비[士]로서의 직분인 학문에 전념하며 지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시 <自歎出處難>의 “궁벽한 마을에 조용히 살면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니 어찌 경거망동을 하여 평생을 그르치리오(窮巷靜居宜守分, 何須妄學誤平生)”라는 시구에서도 사족으로서의 직분을 따르는 삶, 즉 학문 講學의 확고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시조로 형상화되면서 학자의 자질과 면모를 敎示하고 있다.

堯舜도 사람이요 내 역시 사람이다  
 사람은 혼가지나 堯舜 호자 堯舜이다  
 아마도 發憤力行하면 人皆可爲堯舜일가 호노라

<天性賢愚同>

이 시조는 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노래한 작품인데, 인간이 도달해야 할 君子의 이상형으로 堯舜을 설정하여, 성인인 堯舜과 작자를 대비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중장에서 堯舜도 사람이고 작자인 ‘나’ 역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堯舜만 성인의 품성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데에는 중장에서 알 수 있듯이 ‘發憤力行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그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 작자는 ‘發憤力行’, 학문을 닦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 堯舜과 같은 성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孔子는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진리를 터득하면 즐거워서 걱정도 잊어버린 가운데, 늙음이 나에게 닥

22) 『論語』, 『衛靈公』. “君子, 不以言舉人, 不以人廢言.”

쳐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자신을 평하였는데,<sup>23)</sup> 종장의 시어 ‘發憤力行’은 孔子의 이러한 학문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면 힘써 터득한 이치를 타인에게 가르쳐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 다음 시조는 先覺者로서 이러한 교육자적 면모를 갖출 것을 교훈하는 작품이다.

天性은 험가지나 氣稟은 다르도다  
先覺이 覺後覺은 하늘의 쓰지니 元無識은 불이고 知而不言 괴이하다  
아마도 教人不倦은 好學者의 道理인가 흐노라

<有知不教不知同>

작자는 초장에서 天性은 한가지이지만 각각의 기질과 품성은 다르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중장에서 先覺者가 後覺者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 본래의 무식함에서 벗어나서 알게 되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괴이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는 곧 『孟子』 『萬章章句上』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 먼저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뒤늦은 사람을 가르쳐 깨닫도록 하였는데,<sup>24)</sup> 이들이 사물의 이치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면 현실 세태를 탄식한 것이다. 그래서 종장에서 작자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의 도리로 ‘教人不倦’<sup>25)</sup>, 즉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실천 윤리를 들어 후학 교육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시조에 담겨있는 주지는 『大學』의 三綱領 중 하나인 ‘新民’의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新民’의 개념은 『大學章句』 傳2章에서 부연되는데, 湯임금의 盤銘에 새겨진 글과 『康誥』, 『詩經』의 문구를 통해 새롭게 한다는 ‘新’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sup>27)</sup> 이 ‘新’에 대해 朱子는 백성들 스

23) 『論語』, 『述而』.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

24) 『孟子』, 『萬章章句上』. “天之生此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

25) 『論語』, 『述而』. “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26) 高應陟은 『大學』의 三綱領 중에 하나인 ‘新民’을 주제로 하여 시조 <新民曲>을 지었는데, 安昌後의 시조와 詩意가 유사하다. <新民曲>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흔히비 흔히 누어 자는 사름 결터 두고 / 火燃積薪커니 설워 아니 세올러나 / 진실로 아니웃 세오면 제나 내나 다르라

스로서 자각하도록 일깨운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新民은 明明德이 타자에  
 계까지 확대되는, 대중을 향한 교화를 의미한다<sup>28)</sup>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교화를 담당할 계층으로 君子를 설정하여, 그들이 때와 장소, 일이나 행위  
 를 가리지 않고 체득한 至善을 행함으로써 타자들을 새롭게 하여 至善에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9)</sup>

결국 安昌後의 시조 <有知不教不知同>는 이와 같은 ‘新民’의 개념을 설  
 명하기보다는 실천적 윤리를 敎示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학문 연마를 통해  
 올바른 덕을 갖춘 사람들이 타인을 교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  
 는 것이다.

### 3) 효 윤리의 강조를 통한 가문의식의 확립

五倫을 주제로 하여 시조를 짓던 관습은 이미 16세기부터 시작되어 17세  
 기까지 이어져, 많은 향촌사족들이 연시조 형식의 ‘五倫歌’를 창작해왔다.  
 이러한 ‘五倫歌’ 계열의 시조는 다섯 가지의 인간관계, 즉 父子·君臣·夫  
 婦·長幼·朋友 관계에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모두를 노래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五倫歌’ 계열의 연시조  
 는 창작되지 않고, 작가의 교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五倫 중 일부가  
 선택되어 시조로 창작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安昌後의 시조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데, 그는 五倫 가운데 부모에 대  
 한 효도를 권면하는 시조만을 짓고,<sup>30)</sup> 나머지 네 가지 윤리 덕목은 노래하  
 지 않았다. 이는 효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사족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를 통해 가문의 입지를 회복

27) 『大學章句』傳2章. “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康誥曰, ‘作新民.’ 詩曰, ‘周雖舊邦, 其命惟新.’ 是故君子無所不用其極.”

28) 심우섭, 『『大學』의 道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37, 동양철학연구회, 2004, 314~315면 참조.

29) 줄고, 『高應陟의 詩歌文學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4, 121면.

30) 조태흠은 18·19세기 김천택, 김수장, 안민영과 같은 가객들이 훈민시조를 창작할 때 오륜의 다섯 가지 덕목 가운데 주로 효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만을 지어 주제가 효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가객들이 자주 초청되어 시조를 연행했던 연회가 생일이나 회갑 잔치였기 때문에 청중들의 취향이나 기호를 고려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조태흠, 『18·19세기 훈민시조의 변모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15, 한국문학회, 1994, 162~165면 참조.

하고 가문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이흐다 내 일이야 흐므음 두 가지다  
 양즈에 진심호고 事親에 未盡호니  
 慈烏의 未反哺는 내 恨인가 흐노라

<養子方知我不孝>

이 시조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권면하는 작품이다. 초장과 중장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자기 자식을 돌보는 데에는 진심을 다하지만 자신의 어버이를 봉양하는 데에는 정성을 다하지 않는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당위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함을 說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키울 때의 마음과 부모님을 봉양할 때의 마음을 대비하여 청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설정한 점이 독특하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까마귀가 다 자란 후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데에서 유래한 ‘慈烏反哺’의 고사를 가져와,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고 있다.

잇버도 잇분 줄 모름고 괴로와도 괴로운 줄 모르니  
 養子홀 至誠은 愚夫愚婦 흐가지다  
 아마도 父母心爲心者ㅣ아 率性之孝인가 흐노라

<子以父母心爲心則率性而爲孝>

이 시조 역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권면하는 작품인데, <養子方知我不孝>와 달리 자기 자식을 잘 기르고자 지극정성을 다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초장과 중장을 보면, 자식을 키울 때 실상 힘이 많이 들지만 힘든 줄 모르고, 괴로워도 괴로운 줄 모르는 부모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다시 말해 부모가 자신을 길러 주실 때의 마음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따르는 효자라고 노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에 대한 효의 윤리는 先祖의 遺業을 잘 계승하는 것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善繼人志도 聖人事요 不待三年改도 古訓이다  
 善繼는 彰前美요 改之는 盖昔非라  
 父兄의 율훈 뜻 못니으면 忝厥祖인가 호노라

<可繼述則繼述 可改則改之>

이 시조의 초장은 『中庸』과 『論語』에서 효를 설명하는 진고를 가져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中庸章句』第19章에서는 先人の 뜻을 잘 계승하고 그 사업을 잘 발전시키는 것을 ‘효’로 설명하였고,<sup>31)</sup> 『論語』 『學而』편에서는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살아계셨을 때의 행적을 살펴 그것을 본으로 삼고 3년 동안 이러한 선친의 道를 고치지 않는 것을 ‘효’로 설명하였다.<sup>32)</sup> 초장은 이러한 경전의 이념을 토대로, 先人の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은 성인의 일이고 3년 동안 선친의 道를 고치지 않는 것도 옛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노래함으로써,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초장의 ‘善繼’와 ‘改之’ 행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선인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은 이전의 잘못을 밝히는 긍정적인 행위로, 고친다는 것은 지난 날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부정적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효에 대한 가치 판단은 중장에서 구체화된다. 작자는 父兄의 율훈 뜻을 계승하지 못하면 그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탄식하였는데, 이는 先人の 좋은 뜻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잘 계승하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2) 安昌後 시조의 시가사적 의의

安昌後는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 못한 채 전라남도 보성에서 살았던 향촌 사족이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당시 향촌사족의 삶은 사회경제적으로 순탄치 않았다. 16·17세기에는 재지사족이 주도하는 향촌 지배체제가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향촌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sup>33)</sup> 17세기 후반

31) 『中庸章句』第19章. “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32) 『論語』, 『學而』. “子曰, 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33) 정진영,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부터 18세기에 이르면 향촌사족들은 정치적·사회적으로 京·鄕이 분기되면서 과거를 통한 중앙 진출도 어렵게 되었고,<sup>34)</sup> 또 18세기 이후에는 지방 행정 및 부세운영의 문제와 관련하여 향촌사족들에게 주어졌던 鄕權마저도 수령에게 귀속되게 되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입지는 더욱 위축되었다.<sup>35)</sup>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향촌사족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향촌사회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급선무로 인식했다. 주지하다시피, 향촌사족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同姓 촌락을 이루며 거주했는데, 이들이 누리왔던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이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위기상황에 처하자 그들은 가문 중심으로 더욱 결집할 수밖에 없었고,<sup>36)</sup> 가문 중심으로 결집한 향촌사족들은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士’로서의 직분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향촌사족들은 가문 내에서 도학의 이념을 교육하고, 修己를 위한 성리학적 실천 윤리를 강조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족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또 친목을 도모하여 친족 간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安昌後의 시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수양론적 관점에서 文·詩·歌의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하여 도학의 이념과 그 실천 윤리를 敎示的으로 說破하려고 했는데, 이는 향촌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든 <人道>의 文에서 그가 문중의 젊은이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sup>37)</sup>

安昌後의 시조가 가진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黃胤錫(1729~1791)의 시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安昌後 시조의 특징은 그가 수양론적인 관점

1998, 254~255면 참조.

34) 유봉학, 『경·향 학계의 분기와 경화사족』, 『조선 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06~114면 참조.

35)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18·19세기 향권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1, 1~5면 참조.

36)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337~346면 참조.

37) 18세기 가사 중 堂, 精舍, 齋 등과 같이 생활공간에서 창작된 가사작품들이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노래한다거나 사족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교화의식을 담아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김현식, 앞의 논문, 63~76면 참조.

에서 인간과 인간사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람의 도리, 학문 자세, 처세, 효, 先祖의 遺業 계승, 친족과의 敦睦 등과 같이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도학 이념을 시조로 형상화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黃胤錫의 시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黃胤錫은 木川縣監으로 부임했을 때 <木州雜歌> 28수를 지었는데, 첫째 수부터 차례로 君恩에 대한 감사(7수), 가족애(3수), 선친과 가문의식(6수), 마음의 수양(4수), 五倫(2수), 修身(4수), 古今中外 인물의 동등함(2수)을 노래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작품 세계를 통람하면 黃胤錫 역시 인간과 인간사에 대한 관심을 시조로 노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黃胤錫이 君恩을 주제로 시조를 지었다는 점은 그가 木川縣監으로 부임하여 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던 安昌後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安昌後나 黃胤錫 모두 선조들의 遺業을 계승하자는 뜻을 담은 시조를 창작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安昌後는 효의 관점에서 선인들의 뜻을 잘 계승하고 그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노래하였던 반면에, 黃胤錫은 文章과 行誼를 잘 계승했던 자신의 집안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면서 농사일에 힘쓰고 책을 열심히 읽어 선조의 유업을 잘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어<sup>39)</sup> 그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五倫을 주제로 한 시조의 경우 安昌後와 黃胤錫의 도학적 지향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安昌後는 五倫 중에서 효의 윤리만을 노래하여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黃胤錫은 五倫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夫婦一倫은 五倫之本이라 엇디 無別호을소냐”라고 하여 부부 간의 윤리[夫婦有別]를 부각시키고 있다.<sup>40)</sup> 이는 두 작가 모두 향촌 내에서 사족으로서 자신과 가문 구성원을 향해 교화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지향점에 있어서는 차이를 있음을 의미한다.

38) 전재강, 『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작가의식』, 『시조학논총』19, 한국시조학회, 2003 ; 정소연, 『황윤석의 <목주잡가>에 나타난 시 지향성의 시조사적 조명』,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39) <木州雜歌> #15. “文章도 繼繼흥사 行誼도 承承흥사 / 科宦이 굿다흔들 우리 五世 늘 불을 가 / 두어라 明農讀書호여 先子遺訓 傳호여문”

40) <木州雜歌> #21. “君臣은 大義 잇고 父子는 至親이며 / 長幼有序的 兄弟 들고 朋友有信의 師生 드네 / 아마도 夫婦一倫은 五倫之本이라 엇디 無別호을소냐”

安昌後가 이와 같이 효의 윤리를 강조하였던 배경은 長興에 세거해 온 향촌사족 魏伯珪(1727~1798)의 가사 <즈회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즈회가>는 魏伯珪가 회갑을 맞이하여 불효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은 가사로, 참회의 서정보다는 ‘노인문제에 대한 성찰’과 ‘효의 도리에 대한 교술’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노인은 돌아가신 부모 넘이기도 하고, 환갑을 지낸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보다 넓은 의미로는 당대의 노인 일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 속의 구현된 노인들은 효도의 대상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단지 짐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인 효의 도리는 당대의 빈궁한 삶의 조건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즈회가>는 이러한 당대 세태를 비판하여 친지나 후손들을 감화적으로 설득하여 효의 윤리를 교화하려는 작품이다.<sup>41)</sup>

이 가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효의 도리가 빈궁한 삶이라는 현실 조건 속에서 동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면 향촌사족들은 京·鄕이 분기되면서 과거를 통한 중앙 진출도 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鄕權도 수령에게 귀속됨으로써 사회적 입지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마저 좋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安昌後의 시조는 이러한 향촌사족의 몰락한 사회적·경제적 여건 속에서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는 효의 윤리를 성리학적 질서로 재정립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安昌後의 시조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향촌사족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문 내에서 도학의 이념을 교육하고, 또 修己를 위한 성리학적 실천 윤리를 說破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족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安昌後가 여타 다른 작가들과 달리, 한문으로 된 ‘文’이나 ‘詩’, 국문으로 된 시조와 가사 등의 다양한 양식을 활용하여 인간사와 관련된 실천 윤리를 대상이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교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41) 김석희, 『『魏門歌帖』을 통해 본 조선 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희문화사, 1995, 319~325면 참조.

#### 4. 맺음말

지금까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동안 전라도 보성에서 삶을 살았던 향촌사족 安昌後의 생애와 시조 24수를 검토하여 그가 시조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도학적 지향을 고찰하고, 그것이 가지는 시가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安昌後는 유교 경전을 읽고 그 이치를 궁리하였는데, 특히 修己의 측면에서 심성을 수양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향촌사족인 자신의 직분이 학문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자로서 성리학적 소양을 갖추는 동시에 참된 본성을 기르고 순수한 마음을 보전하기 위해 盡力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체득한 도학의 이치는 생활공간인 ‘閒說堂’에서 친족 및 여러 벗들과 더불어 文, 詩, 歌 등의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향유되었다.

이와 같은 安昌後의 문학적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의 시조를 살펴본 결과, 그는 『論語』, 『孟子』 등의 유교 경전과 韓愈, 程頤와 같은 성현의 삶을 전고로 하여 인간의 도리와 삶을 살아가는 이치를 실천적 修己 윤리로 전환하여 시조로 노래하였는데, 특히 인간 본성과 처세에 대한 권면을 통한 人道の 함양, 학자의 자세 敎示를 통한 士로서의 직분 수행, 효 윤리의 강조를 통한 가문의식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도학 이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보다는 敎示的 說破에 더욱 초점을 맞춰 청자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교화하려고 하였다. 그가 文, 詩, 歌의 다양한 양식을 활용하여 도학 이념을 깨우치게 한 것도 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安昌後의 시조는 향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입지가 약화되는 향촌사족들이 향촌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시조를 통해 도학의 이념을 교육하고, 修己를 위한 성리학적 실천 윤리를 강조하여 가문 구성원들에게 사족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또 친목을 도모하여 가문의 결속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安昌後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黃胤錫의 시조와 비교했을 때 수양론적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사에 대한 윤리를 시조로 노래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五倫을 주제로 한 시조의 경우 도학적 지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安昌後가 修己의 실천 윤리를 傳言하기 위해 하나의 주제 아래 창작했던 다양한 양식, 즉 文, 詩, 시조, 가사의 관계에 대해 장르적 차원에서 비교 고찰하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표현의 매체인 언어, 표현 양식인 장르의 차이에 따른 교화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安昌後, 『閒說堂遺稿』, 강남대 한실문고.  
안용백 편, 『竹山安氏族譜』, 국립중앙도서관, 1982.  
『湖南邑誌』.

### 2. 단행본

-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 출판부, 1999.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 출판부, 1998.  
신연우, 『사대부시조와 유학적 일상성』, 이회문화사, 2000.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3. 논문

- 김석희, 『『魏門歌帖』을 통해 본 조선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309~341면.  
김인걸, 『조선 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18·19세기 향권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1.  
김현식, 『18세기 사족층 가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1.  
설인경, 『18세기 향촌사족의 시조 연구』, 『문창어문논집』47, 문창어문학회, 2010, 197~233면.  
송재연, 『高應陟의 詩歌文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4.  
이상보, 『한설당 안창후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9,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91, 5~40면.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79, 한국어문학회, 2003, 491~516면.  
정홍모, 『18세기 향촌사대부 시조의 한 국면-남극엽·황윤석·안창후의 시조』, 『조선 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211~236면.  
조태흠, 『18·9세기 훈민시조의 변모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15, 한국문학회, 1994, 147~167면.

A study on Confucian orient and literary significance  
in Sijo(時調) which written by An Chang-Hoo(安昌後)

Song, Jae-y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Confucian orient, through the examination An Chang-Hoo(安昌後)'s life and his literary works, Sijo(時調) during his life as a moralist. This study also establishes the literary status of Sijo(時調) i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18<sup>th</sup> century.

An Chang-Hoo(安昌後) devoted himself to exploring the tenets of Confucian ethics, in focusing on Confucian cannons. Especially, he paid a constant effort to foster a mentality in self-cultivation. He thought that his ministry as a Sajok(士族) is dedicated to the study, so he made exertions to have grounding in Confucian. And he made an effort to develop human nature and to preserve a pure heart. His moral philosophical living and academic orientation had an effect on creating his literary works, such as chinese prose, chinese poetry and Sijo(時調). He created variety of literary works which including the practical problems that foster a mentality and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in selfcultivational view. And he enjoyed his literary works with relatives and friends in Hansundang(閑說堂).

In Sijo(時調), he expressed the human duty and reason of life in practical ethics, through Confucian cannons such as *Mengzi*(孟子) *Lunyu*(論語) and the teaching of the sages, such as Hanyu(韓愈) and Jungyi(程頤). In particular, he put more emphasis on encouragement of human nature and conduct of life, teaching attitudes of scholars, and stress of ethics of Hyo(孝). These is aimed at cultivation of morality, performing duties as a scholar, and establishment of family rituals. Also, in expression, he chose the ways of teaching the tenets of Confucian ethics to put into action rather than literary configuration

These means that HyangchonSajok(鄉村士族) educated the ethics through form of Sijo(時調) in order to secure their position within the country in the changes of the 17<sup>th</sup>-18<sup>th</sup> centuries, and emphasized on the Confucian ethical practice to

cultivate the qualities as a Sajok(士族).

Above all, it is important that An Chang-Hoo(安昌後) intended to overcome this crisis by offering an ethical solution through Sijo(時調), after he consulted the families of the crisis, based on the awareness of contemporary society. And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his Confucian orientation differ from other author, for example Hwang Yoon-Suk(黃胤錫), even though it is similar that both tried to teach ethics through Sijo(時調).

keywords: An Chang-Hoo(安昌後), moralist, Confucian scriptures(儒教經典), Sijo(時調), Confucian orient, self-cultivation(修己), practical ethics, teaching elucidation

접수일자: 2015. 3. 31.

심사기간: 2015. 3. 31.~2015. 5. 10.

계재결정: 2015. 5. 10.